

일 지역 여대생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의 관계

Relationships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n Breast Self-Examination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김영숙
고신대학교대학원

Young-Suk Kim(joy1763@hanmail.net)

요약

본 연구는 일 지역 여대생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연구대상자는 U시에 소재한 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대생 330명으로 설문 조사하였으며, 연구결과 지식 점수는 6.60점/17점으로 낮았고, 태도 점수는 42.34점/64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실천 점수는 13.23점/24점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정도는 연령($t=11.013$, $p<.001$), 학년($t=12.725$, $p<.001$), 유방자가검진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t=6.661$, $p<.001$), 권유자가 있는 경우($t=3.426$, $p=.001$),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t=5.825$, $p<.001$), 유방자가검진을 시행하는 경우($t=2.789$,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실천 정도는 유방자가검진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t=5.250$, $p<.001$),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t=4.493$, $p<.001$), 앞으로 자가검진 계획이 있는 경우($F=3.910$, $p=.01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식과 태도 정도의 관계는 미약한 순 상관관계를 보였고, 지식과 실천 정도의 관계는 약한 순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여대생의 유방자가검진 실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유방자가검진 교육방법 개발이 필요하다.

■ 중심어 : | 여대생 | 유방자가검진 | 지식 | 태도 | 실천정도 |

Abstract

Purpose: The study was to identify the relationships between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on breast self-examination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Methods: This descriptive study was conducted with a convenient sample of 330 female university students. Results: The mean score for knowledge of breast self-examination was 6.60/17 and attitude toward breast self-examination 42.34/64 and Practice level for breast self-examination was 13.23/24. The level of knowledge was differed significantly by Age($t=11.013$, $p<.001$), Grade($t=12.725$, $p<.001$), hearing experience of BSE($t=6.661$, $p<.001$), experience of recommendation by others about BSE($t=3.426$, $p<.001$), Educational experience of BSE($t=5.825$, $p<.001$), experience of performance of BSE($t=2.789$, $p=.005$). Practice level was differed significantly by hearing experience of BSE($t=5.250$, $p<.001$), Educational experience of BSE($t=4.493$, $p<.001$), Plan of BSE($F=3.910$, $p=.013$). Slightly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knowledge and attitude, knowledge and practice.

Conclusion: The study suggested that we need to develop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 for breast self examination to promote practice level of female students in university.

■ keyword : | Female Students in University | Breast Self- Examination(BSE) | Knowledge | Attitude | Practice |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동서양을 막론하고 유방암 발생빈도가 증가하여 전 세계 여성의 건강과 안녕을 위협하고 있다[1]. 2011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유방암은 2009년 우리나라에서 여성의 암 중 갑상선암을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2]. 유방암의 발생 연령을 비교해보면 서구의 경우 50-60대 노령 환자가 많은 반면, 우리나라는 40대 환자가 37.1%로 가장 많았고, 20-30대 환자의 비율은 14.2%이었다[3]. 또한 각 연령대별로 누적 환자 대비 신규환자 비율을 살펴볼 때 20-30대 젊은 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4], 최연소 유방암 환자 연령이 2006년 19세에서 2012년 13세로 점점 낮아지고 있어[3], 20-30대 젊은 유방암 환자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유방암은 여성이면 누구에게나 발병할 수 있는 암이며 죽음의 의미와 함께 여성과 양육이라는 정체성의 상실, 신체상의 변화라는 문제가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질병의 개념을 초월한다[5].

유방암 발병인자로 생활양식과 관련된 것으로 음주, 흡연, 35세 이후 늦은 초산, 독신, 비만 등이 있다. 우리나라 성인 초기에 해당되는 20대와 30대 젊은 여성들이 서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 초혼과 초산이 늦어지고 음주, 흡연 여성이 증가하고 있다. 더불어 식생활이 서구화됨으로 인해[3] 젊은 여성들은 유방암 발병요인에 많이 노출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50대 이상의 중년여성에서 유방암 발병률이 높지만, 2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 한 달에 한 번씩 유방자가검진을 실시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6]. 하지만 국내의 권고안은 유방자가검진을 30세 이상부터 매월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고, 35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유방자가검진과 2년 간격으로 전문가에 의한 유방검진을, 40세 이상의 여성은 매월 유방자가검진과 1년 간격으로 유방촬영술 및 전문가에 의한 유방자가검진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2].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유방암 발생 연령대가 낮지만 유방자가검진 시기는 오히려 늦게 시작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생의 주기에서 여대생 시기는 육체적 성숙과 함께 성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회,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7].

또한 여대생 시기는 성인후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습관이 확고히 형성되지 않아 좋은 건강행위를 수립할 수 있는 시기라 할 수 있다[8]. 건강의 측면에서 이 시기는 유방암 유병률이 낮은 수준이다. 하지만 서구화된 사회문화, 식생활의 영향, 연령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유방암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시기에 유방암 예방과 관련된 건강 습관의 형성이 중요하다. 유방자가검진은 여대생들이 유방암 예방을 위해 습득해야 할 건강증진행위로 대학생활을 통해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 습득될 수 있을 것이다.

유방암은 다행히 조기발견과 신속한 치료를 통해 사망률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암이다. 유방암으로 인한 생존율은 최초의 종양크기와 조기발견으로 90%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수술환자의 5년 생존율은 1기는 99%, 2기는 89%, 3기는 59%, 4기는 28%[5]로, 병기가 오래 될수록 생존율이 떨어져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유방암 조기 검진 방법으로 효과적인 방법은 유방촬영술과 전문가에 의한 임상적 유방검진이 있다. 하지만 이들 방법은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자신의 유방을 남에게 노출해야 하므로, 특별한 유방 문제가 없는 건강한 여성들의 이용률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9].

반면 유방자가검진인 경우에는 여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간편한 검진이고 매월 1회씩 규칙적으로 실시하므로 자신의 유방 형태나 촉감 등에 익숙해져 새롭게 생긴 몸의 작은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10]. 태영숙[11]의 연구에서는 약 90% 환자가 우연히 또는 스스로 의심스러운 멍우리를 발견하고 내원하였다. 또한 유방자가검진을 매월 시행하는 여성은 유방자가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여성에 비해 유방암의 1단계(stage I)에서 진단받을 확률이 3배 이상 높았으며 종양의 크기가 커지기 전에 발견하게 되어 비용효과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12]. 그러므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발생되

는 우리나라의 유방암 예방에 있어 유방자가검진은 조기발견방법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검진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노력과 홍보 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들의 유방자가검진 실천율은 약 23-38%로 보고되었다[13][14].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은 16.7%뿐으로[15], 실천 정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또한 유방자가 검진을 통해 이상 소견을 발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낮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어 [11] 실제적으로는 유용한 조기검진방법으로써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유방자가검진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1], 태도[16], 건강신념[17], 자기효능감[18]등이 있다. 지식과 태도는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데 유용한 요인이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인간의 행동에 있어 지식과 태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지식과 태도가 인간의 행동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9]. 특히 건강지식은 건강에 관련된 결심을 하게 한다. Sallis[20]는 건강증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에서 지식이 행동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민혜진[21]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질병에 대한 지식과 건강신념 및 건강증진 행위가 질병을 예방하거나 관리하는데 직접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즉, 질병에 대해 아는 것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건강관련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에 관련된 행동 변화의 조건인 태도 역시 중요하다. 선행연구에서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실천정도에 영향을 주는 동기이고 유방자가검진 시행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10][11][18][22-24].

지금까지 국내에서 수행된 유방자가검진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중년 이상의 성인에게 집중되어 있어 [17][18][24], 한국의 성인 초기 여성에 해당하는 여대생들의 유방자가검진 이행 실태에 관한 자료와 관심은 지극히 부족한 상황이다[25]. 하지만 외국의 경우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유방자가검진 연구들을 오래전부터 시행하고 있다[26][27].

이상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여대생들에게 유방암 관련 경고가 충분히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여대생들의 실제로 유방암과 유방자가검진과 관련하여 알고 있는 지식의 정도, 검진에 관한 태도, 실천 정도는 어느 정도 인지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천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한 후 개개인의 건강 행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28].

그러므로 본 연구는 건강습관이 만들어지고 건강에 대한 태도가 발달되는 중요한 시기인 여대생들의 유방암과 유방자가검진 관련 지식, 태도와 실천 정도와 실천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여 향후 여대생들을 위한 유방암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의 기초자료로 삼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 지역 여대생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정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정도를 파악한다.
- 3)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유방자가검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일 지역 여대생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정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절차

연구대상은 U시 소재의 1개 대학교에서 재학 중인 여학생으로 본 연구를 위한 예상 표본 수는 G-power 3.1.4프로그램에 의해 산출했을 때, 일원분산분석에서 유의수준(α) .05, 효과크기(r)를 medium(.25), 검정력($1-\beta$) .95로 설정하여 계산하였을 때 305명이었다. 설문지는 탈락률을 고려하여 350부를 배부하였고, 자료수집 결과 응답자는 340명이었으며 수집된 자료 중 불충분하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10명의 설문을 제외한 최종 연구대상자는 330명이었다. 연구의 목적, 참여의 자발성, 정보의 비밀유지 등을 각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린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경우에만 설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응답소요시간은 15분이었다. 자료수집기간은 2012년 3월 10일부터 4월 10일까지였다.

3. 연구도구

3.1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이란 유방암에 대한 지식과 유방자가검진, 유방암 조기발견을 위한 행위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며[29], 이은주[12]의 연구도구를 기초로 최선미[1]가 간호학 교수 2인의 자문을 구한 후 간호사 2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완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유방암과 유방암 증상 9문항, 유방자가검진 관련 8문항으로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배점은 '그렇다'에 1점, '아니다', '모르겠다'에 0점을 배점하여 점수화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1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6이었다.

3.2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태도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태도란 유방암 조기 진단에 영향을 주는 한 요인으로 유방 자가검진에 대한 개인적인 가치와 신념을 말하며[30], 본 연구에서는 유방자가검진의 필요성, 유방암 조기발견의 효과, 검진절차의 복잡성과 소요시간, 유방자가검진 수행 시 경험 가능한 불안 등을 포함한다. 유방자가검진 태도측정도구는 백명

[31], 김미향[32]이 사용한 도구를 이은주[12]가 수정 보완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16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각 문항들은 '결코 그렇지 않다' 1점, '거의 그렇지 않다' 2점, '약간 그렇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을 배점하였으며 이들의 점수 범위는 최저 16점에서 최고 64점까지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이은주[1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66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68이었다.

3.3 유방자가검진 실천

유방자가검진은 한 달에 한번 자신의 유방에 어떤 변화나 이상 덩어리 유무를 발견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철저한 검진 방법으로, 매달 유방자가검진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2] 유방자가검진 실천은 이영희 외[13]가 개발한 유방자가검진 실천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수행 빈도에 관한 1문항, 시진에 대한 질문 3문항, 촉진에 대한 질문 2문항 등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Likert식 4점 척도로 '전혀 시행하지 않는다'에 1점, '2개월에 한 번 정도 시행 한다'에 2점, '가끔 시행 한다' 3점, '매달 시행 한다'에 4점을 부과하여 최저 1점에서 최고 24점의 범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유방자가검진을 잘 실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영희 외[14]가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는 .86이고 본 연구에서는 .85이었다.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대상자의 제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유방암과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정도는 평균, 및 표준 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암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정도는 t-test, ANOVA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 4) 대상자의 지식, 태도 및 실천정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제 특성

본 연구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연령대는 18-20세로 68.2%이며, 1학년이 43.3%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 중 99.1%는 유방질환을 경험한 적인 없었고, 주변 사람 중 유방암을 경험한 경우는 10.6%이었으며, 그 중 친척인 경우 7.6%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친구나 지인(2.1%), 어머니(0.9%), 순이었다.

유방자가검진과 관련하여 청구 경험이 있는 경우는 51.2%이고, 권유자가 있는 경우는 14.2%이었다. 또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는 40%이었다. 실제 유방자가검진을 시행하는 경우는 18.2%이며 그 중 불규칙적으로 하는 경우(15.5%), 6개월마다 시행하는 경우(1.8%), 매달 시행하는 경우(0.9%)순이었다.

유방자가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는 ‘유방자가검진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서’(25.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유방자가검진 방법을 몰라서’(23.6%), ‘귀찮아서’(10.3%), ‘유방암에 걸릴 염려가 없어서’(7.6%)순이었다.

앞으로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실천 계획으로는 ‘모르겠다’(54.8%), ‘생각날 때’(27.3%), ‘규칙적으로’(16.1%) 하겠다는 순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제 특성 (n=330)

특성	구분	실수 (백분율)
연령	18-20세	225(68.2)
	21-23세	75(22.7)
	24세 이상	30(9.1)
학년	1학년	143(43.3)
	2학년	84(25.5)
	3학년	69(20.9)
	4학년	34(10.3)
월경주기	규칙적	169(51.2)
	불규칙적	161(48.8)
유방질환경험	유	3(0.9)
	무	327(99.1)
주변사람의 유방암 경험	유	35(10.6)
	무	295(89.4)
주변사람 중 유방암 경험 대상자	친척	25(7.6)
	친구, 지인	7(2.1)
	엄마, 자매	3(0.9)
유방자가검진 들어본 경험	유	169(51.2)
	무	161(48.8)

유방자가검진 권유자	유	47(14.2)
	무	283(85.8)
유방자가검진 교육을 받은 경험	유	132(40.0)
	무	198(60.0)
유방자가검진 시행유무	유	60(18.2)
	무	270(81.8)
유방자가검진 시행 횟수	불규칙	51(15.5)
	6개월	6(1.8)
	매달	3(0.9)
유방자가검진 시행하지 않는 이유	자가검진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85(25.8)
	자가검진 방법을 몰라서	78(23.6)
	귀찮아서	34(10.3)
	유방암에 걸릴 염려가 없어서	25(7.6)
	잊어버려서	23(7.0)
	바빠서	6(1.8)
	부끄러워서	4(1.2)
	비정상을 발견할 자신이 없어서	4(1.2)
	유방이 너무 작아서	3(0.9)
	검진 방법이 어려워서	2(0.6)
	일상활동으로 발견되므로	1(0.3)
	새로운 습관이므로	1(0.3)
기타	4(1.2)	
앞으로의 유방자가검진 계획	모르겠다	181(54.8)
	생각날 때	90(27.3)
	규칙적	53(16.1)
	하지 않을 것이다	6(1.8)

2.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정도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정도는 17점 만점에 평균 6.60점이었고, 태도 정도는 64점 만점에 평균 42.34점이었으며, 실천 정도는 24점 만점에 평균 13.23점이었다[표 2].

표 2.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정도

특성	문항 수	평균± 표준편차	도구 범위
지식 정도 (n=330)	17	6.60±3.22	0-17
태도 정도 (n=330)	16	42.34±5.39	16-64
실천 정도 (n=60)	6	13.23±4.28	6-24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정답률은 38.8%이었고, 정답률이 가장 높은 문항은 ‘어머니나 언니, 여동생이 유방암에 걸린 여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82.7%),이며, 정답률이 가장 낮은 문항은 '유방자가검진 시 촉진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4.8%)로 나타났다[표 3].

문항별 태도 정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유방자가검진을 하면 유방암 조기발견에 도움이 된다'(3.54±0.58)이며, 태도 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내가 유방암에 걸리면 고통이 심할 것이다'(1.95±0.78)로 나타났다[표 4].

지난 1년 동안 1번 이상 유방자가검진을 실천한 대상자의 문항별 실천 정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나는 거울 앞에 서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양쪽 유방의 모양을 관찰하였다'(3.52±0.74)이며, 실천 정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양팔을 허리에 대고 양쪽 유방의 모양을 관찰하였다'(2.92±1.00)라는 결과로 나타났다[표 5].

표 3.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문항별 지식 (n=330)

순위	문항	정답률(%)
1	어머니나 언니, 여동생이 유방암에 걸린 여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82.7
2	한쪽에 유방암이 발생하였던 사람은 다시 유방암에 걸리지 않는다.*	79.1
3	월경 전 가슴에서 만져지는 덩어리는 암이 아닐 수도 있다.	57.3
4	유방 촉진 시에는 유방과 겨드랑이 아랫 부분, 그리고 쇄골 부분에 걸쳐 골고루 촉진한다.	51.2
5	유방자가검진은 생각날 때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0.6
6	우리나라 여성 중 유방암에 가장 잘 걸리는 나이는 40대이다.	46.7
7	유방을 촉진할 때는 등골계 원을 그리면서 한 부분에서 누르는 정도를 달리하여 세 번 촉진한다.	37.9
8	유방암은 겨드랑이가 연결되는 유방의 위쪽 바깥부분에 잘 생긴다.	37.6
9	유두에서 피가 나오면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다.	36.7
10	유방에 멍우리가 발견되면 더 커지는지 조금 만져본다.	33.0
11	유방자가검진을 할 때는 오른쪽 유방은 오른 손으로 왼쪽 유방은 왼손으로 검진한다.*	32.4
12	팔을 내린 상태에서 양쪽 유방과 높이가 같아야 정상이다.	28.5
13	유방자가검진 시 평균 15~20분이 소요된다	26.7
14	생리를 하는 여성의 경우 유방자가검진을 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생리 일주일 전이다.*	20.6
15	유방을 촉진할 때는 다섯 손가락 끝부분을 이용하여 촉진한다.*	19.7
16	최근에 젖꼭지가 움푹 들어간 것은 유방암을 의심할 수 있다.*	14.2
17	다음 그림 중 유방자가검진 시 촉진방법으로 적절한 것을 모두 골라 해당번호에 'V'표 하시오.	4.8
합계		38.8

* 아니오가 정답인 문항

표 4.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문항별 태도 (n=330)

순위	문항	평균평점± 표준편차
1	유방자가검진을 하면 유방암 조기 발견에 도움이 된다.	3.54±0.58
2	유방자가검진을 하면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3.40±0.64
3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받으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다	3.35±0.66
4	유방자가검진을 하면 유방암에 걸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한다	3.02±1.77
5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나는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	2.08±0.78
6	유방자가검진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2.75±0.70
7	내가 유방암에 걸린다면 합병증이 심할 것이다.*	2.61±0.81
8	유방자가검진을 하는데 그 절차가 복잡하게 생각된다.*	2.60±0.73
9	유방자가검진을 할 때 마음이 불안할 것이다.*	2.50±0.79
10	유방자가검진을 하는 장소가 부담된다.*	2.41±0.80
11	내가 유방암에 걸려도 오래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2.36±1.62
12	내가 유방암에 걸린다면 가정생활을 해나가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다.*	2.33±0.82
13	내가 유방암에 걸린다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다.*	2.27±0.86
14	내가 유방암에 걸린다면 부부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클 것이다.*	2.21±0.85
15	나는 다른 사람들이 유방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내 건강이 염려된다.*	2.36±1.88
16	내가 유방암에 걸리면 고통이 심할 것이다.*	1.95±0.78

* 역산문항

표 5.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문항별 실천 (n=60)

순위	문항	평균평점± 표준편차
1	나는 거울 앞에 서서 허리를 구부린 상태에서 양쪽 유방의 모양을 관찰하였다.	3.52±0.72
2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 위로 두 손을 올린 후 양쪽 유방의 모양을 관찰하였다.	3.37±0.84
3	나는 유방자가검진을 하였다.	3.17±0.89
4	나는 누워서 팔을 내린 후 유방을 손으로 만져 덩어리가 만져지는지 확인하였다.	3.15±0.82
5	나는 누워서 팔을 올린 후 유방을 손으로 만져 덩어리가 만져지는지 확인하였다.	3.07±0.84
6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양팔을 허리에 대고 양쪽 유방의 모양을 관찰하였다.	2.92±1.00

3.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정도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정도는 연령(F=11.013, p<.001), 학년(F=12.725, p<.001),

표 6.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정도

특성	구분	지식(n=330) 평균±표준편차	t(p) or F(p) Scheffe's	태도(n=330) 평균±표준편차	t(p) or F(p) Scheffe's	실천 (n=60) 평균±표준편차	t(p) or F(p) Scheffe's
연령	18-20a	6.13±3.18	11.013(<.001) a,b<c	42.57±5.34	0.905(.405)	12.46±4.53	2.311(.108)
	21-23b	7.12±3.19		41.61±4.31		13.0±2.97	
	24세이상c	8.80±2.52		42.50±7.73		15.64±5.20	
학년	1학년a	5.44±3.06	12.725(<.001) a(b,c,d)	41.91±5.08	1.408(.054)	10.36±5.07	2.658(.057)
	2학년b	7.20±3.20		43.21±5.33		13.19±3.73	
	3학년c	7.51±3.09		41.87±4.81		13.77±3.15	
	4학년d	8.12±2.60		42.35±5.39		13.09±5.24	
월경주기	규칙적	6.88±3.20	1.615(.107)	42.54±5.16	0.056(.513)	13.39±3.89	0.319(.750)
	불규칙적	6.30±3.23		42.15±5.63		13.04±4.81	
유방질환 경험	유	8.33±3.51	0.938(.349)	44.67±7.57	0.748(.455)	16.33±7.09	1.293(.201)
	무	6.58±3.22		42.33±5.38		13.07±4.12	
주변사람의 유방질환 경험	유	6.95±3.32	0.726(.469)	43.07±5.81	0.899(.369)	11.87±3.66	-1.440(.155)
	무	6.55±3.21		42.25±5.33		13.69±4.41	
유방자가검진을 들어본 경험	유	7.68±3.06	6.661(<.001)	42.74±5.77	1.353(.177)	14.98±3.59	5.250(<.001)
	무	5.46±2.99		41.94±4.94		9.47±3.16	
유방자가검진 권유자	유	8.06±3.16	3.426(.001)	43.00±6.10	0.895(.372)	14.12±4.40	1.005(.319)
	무	6.35±3.17		42.24±5.27		12.88±4.24	
유방자가검진 교육 받은 경험	유	7.80±3.10	5.825(<.001)	42.73±6.16	1.064(.288)	14.84±3.88	4.493(<.001)
	무	5.79±3.05		42.09±4.81		10.45±3.50	
유방자가검진 시행	유	7.65±3.25	2.789(.005)	42.52±5.36	0.267(.790)		
	무	6.36±3.17		42.31±5.40			
유방자가검진 시행회수	매달	7.67±3.21	0.726(.488)	41.00±3.61	0.144(.867)	11.67±6.66	0.206(.815)
	6개월	9.17±2.23		42.17±5.71		13.33±6.98	
	불규칙	7.47±3.35		42.65±5.48		13.31±3.85	
	규칙적	7.33±3.60		42.25±5.96		15.28±4.25	
앞으로 자가검진 계획	규칙적	6.70±3.52	1.640(.180)	42.55±5.96	0.273(.845)	10.58±4.79a	3.910(.013) a,b)d
	생각날때	7.19±3.26		42.56±4.74		13.08±4.06b	
	하지않는다	6.50±2.81		43.67±3.50		18.00±4.90c	
	모르겠다	6.28±3.10		42.14±5.59		10.88±3.58d	

유방자가검진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 (t=6.661, p<.001), 권유자가 있는 경우(t=3.426, p<.001), 유방자가검진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t=5.825, p<.001), 유방자가검진을 시행하는 경우(t=2.789,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태도 정도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지난 1년 동안 1번 이상 유방자가검진을 실천한 대상자 60명의 제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실천 정도는 유방자가검진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 (t=5.250, p<.001), 유방자가검진 교육을 받은 경우 (t=4.493, p<.001), 앞으로 자가검진 계획이 있는 경우 (F=3.910, p=.013)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표 6].

4.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정도의 관계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정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식과 태도의 관계는 약한 순 상관관계(r=.280, p=.030)를 보였고, 지식과 실천 정도의 관계는 약한 순 상관관계(r=.375, p=.003)로 나타났다[표 7].

표 7.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정도의관계 (n=60)

특성	지식 r(p)	태도 r(p)	실천정도 r(p)
지식	1	.280(.030)	.375(.003)
태도		1	.145(.268)
실천정도			1

IV. 논 의

본 연구에서 여대생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정도는 17점 만점에 평균 6.6점이었고, 정답률은 38.8%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이자형[33]의 연구에서는 6.12/15점 만점, 양남영 외[34]의 연구에서 8.80점/18점 만점과 비슷하게 나타났고,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미혜[35]의 연구에서 9.6점/16점,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홍숙[24]의 연구에서는 10.7점/18점 만점보다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들의 유방암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이 다른 연령에 비해 낮은 것을 의미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유방암 발병 연령이 40대가 가장 많기에 이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결과라 여겨진다. 그러나 점차 발병 연령이 낮아지는 것과 서구적인 생활양식의 변화로 유방암 발생 위험 요인이 성인초기 여성에게 증가되고 있어 이들에게도 유방암과 유방자가검진의 지식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리라 본다.

여대생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문항별 지식 정도는 ‘어머니나 언니, 여동생이 유방암에 걸린 여성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유방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방암이 유전성 경향을 가진 암이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인지가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정도는 유방자가검진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 경우, 권유자가 있는 경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시행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있어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변영순 외[22]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양영희[18]의 연구에서 유방자가검진 교육프로그램이 유방자가검진 지식수준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유방암과 관련된 직접, 간접적인 경험과 교육을 통해서도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이 증가되고 자가 검진 능력이 증진됨을 알 수 있다.

여대생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문항별 태도 정도는 ‘유방자가검진을 하면 유방암 조기발견에 도움이 된다’가 가장 긍정적이었고, 다음으로 ‘유방자가검진을 하면 건

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의 순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방암의 조기발견과 유방암 예방을 위한 검사의 필요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한국 여성들은 유방자가검진의 중요성과 효율성을 알고 건강에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세수를 하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매일 시행 하는 것이 아니라 월경주기를 기준으로 한 달에 한 번 시행하는 것이므로 규칙적으로 잘 실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므로 매달 규칙적으로 유방자가검진을 하도록 전략적으로 문자 메시지, 달력스티커, 이메일 등을 이용한 동기부여 전략이 필요하리라 본다.

지난 1년간 유방자가검진을 한 번 이상 수행한 연구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 실천율은 18.2%이며 이 중 규칙적으로 시행하는 대상자는 2.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남영 외[34]의 연구에서 13.6%, 이자형[33]의 연구에서 7.4%와 비슷했고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강현주[17]의 연구에서 48%,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한 양영희[18]의 39.4%보다 상당히 낮았다. 또한 유방자가검진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로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유방자가검진 방법을 몰라서’, ‘귀찮아서’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미혜[35], 양남영 외[34]의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여대생은 자신의 건강에 대한 적신호가 없기에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유방자가검진 방법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알지 못해 실천율이 낮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추후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20세 전후로 자신의 정상적인 유방상태를 파악하고 유방암의 위험인식을 높이고 유방검진의 두려움을 줄이고 유방암 검진의 효과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유방자가검진 의도를 가지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36].

Baxter와 동료들은[37] 젊은 여성에게 유방자가검진 의도가 낮은 것은 젊은 층에서 적절한 암 예방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들어 급증하는 20-30대 유방암에 대한 지식과 유방자가검진의 중요성이 젊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아직 유방암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바

꿀 설득 메시지의 부재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캠페인 메시지에 등장하는 모델을 젊은 여성으로 한다면 여대생들이 유방암 캠페인 이슈를 자신의 이슈로 동일시하고 유방자가검진 실천 의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38].

유방자가검진 실천 정도는 24점 만점에 평균이 13.2점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남영 외[34]의 연구의 23.8점/28점 보다는 낮았고, 조홍숙[24]의 연구에서 14.3점/28점과는 비슷하였다.

여대생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문항별 실천 정도에서 여대생은 유방자가검진의 다양한 촉진법을 사용하지 않고 선호하는 방법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한 번이라도 유방자가검진을 시행한 여대생은 유방자가검진 실천 의도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여대생을 위한 유방자가검진 교육매체 제작 시 정확한 습득을 위한 반복적인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매체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대상자의 제 특성에 따른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실천 정도는 유방자가검진에 대해 들어본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박은하[39], 양영희[18]의 연구에서도 유방자가검진 교육을 받은 실험군은 교육을 받지 않은 대조군과 수행능력점수가 유의한 차이가 있어 유방자가검진 실천 요인으로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하였고, 실습을 병행한 유방자가검진 교육 프로그램이 유방자가검진 수행능력 점수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유방암 관련 교육의 대부분이 단순 주입식 강의나 홍보자료배치 등에 그치고 있어 적용대상과 접근방법의 다양성을 고려한 체계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제기된다[1].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정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을수록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약한 순 상관관계($r=.280, p=.030$)를 보였고,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정도가 높을수록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실천도 잘 한다는 약한 순 상관관계($r=.375, p<.003$)를 보였다. 이는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이자형[33], 양남영 외[34]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이나 학습의 결과로 얻어진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의 태도가 형성되거나 행동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여대생들에게 유방암과 유방자가검진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건강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반복적인 실습이 필요하리라 본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중년 여성들은 매스미디어(텔레비전, 신문, 잡지)를 통해 유방암 정보를 얻는 반면 그들의 딸 세대인 여대생들은 유방암 관련 정보를 주로 대인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얻고 있다[39]. 이러한 여대생들이 특성을 고려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용하는 이메일, social web site 등과 같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유방자가검진과 관련된 교육을 반복적으로 시행함이 필요하리라 본다.

본 연구는 표본 추출에 있어 U시 소재 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과 유방자가검진 태도에 대한 연구도구의 Cronbach's alpha가 .66으로 낮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확대 해석할 경우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일 지역 여대생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간의 관계를 조사하여 여대생을 위한 유방암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2년 3월 10일부터 2012년 4월 10일까지였고, 연구의 대상자는 U시에 소재한 1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 330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정도는 17점 만점에 평균 6.60±3.22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태도 정도는 64점 만점에 평균이 42.34±5.39점으로 중간보다 높게 나왔다. 지난 1년 동안 1번 이상 유방자가검진을 실천한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실천 정도는 24점 만점에 평균이 13.23±4.28점으로 중간정도로 나타났다.
- 2) 대상자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정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식과 태도의 관계는

약한 순 상관관계($r=.280, p=.030$)를 보였고, 지식과 실천정도의 관계는 약한 순 상관관계($r=.375, p=.003$)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유방암과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고자 할 때 유방암의 위험성,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동기부여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여대생들이 쉽게 접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실천 정도를 증진시킬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전통적 강의에 의한 지식 전달을 넘어 시뮬레이션 실습과 같은 직접 수행 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전략을 가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여대생의 유방자가검진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여대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그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1] 최선미, 일 병원 간호사의 유방자가검진 실천 관련요인, 대전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학위논문, 2006.
- [2] http://www.cancer.go.kr/candat/cms_renewal/english/01/index.html.
- [3] http://www.kbcs.or.kr/journal/file/2010_2012_Breast_Cancer_Facts_and_Figures_updated.pdf
- [4] <http://www.nhic.or.kr/cms/board/board/Board.jsp?act=VIEW&communityKey=B0070&boardId=20108>
- [5] <http://www.kbcf.or.kr/kbcfInfo/definition.jsp>
- [6] <http://www.cancer.org>.
- [7] 하귀현, 문영자, “일부 대학생의 식품의 영양 성분 표시에 대한 인지도 평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8권 제2호, pp.291-300, 2008.
- [8] 김애경, “건강행위에 대한 한국청년의 주관성 연구”, 대한간호, 제34권, 제1호, pp.50-54, 1995.
- [9] 김은경, 이해정, 안숙희, 정은순, “일부 지역 간호사의 유방자가검진 이행 예측요소”, 대한간호학회지, 제22권, 제7호, pp.1047-1056, 2003.
- [10] 황미애, 간호사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자기효능감과 실천과의 관계, 경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11] 태영숙, 김성진, “간호사의 유방자가검진에 관한 지식, 태도, 실천”, 고신대학교 의학부 학술지, 제18권, 제1호, pp.128-141, 2003.
- [12] 이은주, 간호사들의 유방자가검진 실천도 관련 요인,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13] 이영희, 이은현, 신공범, 송미숙, “국내여성과 미국이주여성의 유방암에 대한 건강신념과 유방자가검진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제34권, 제2호, pp.307-314, 2004.
- [14] 한미연, 정재원, “직장여성의 유방암 검진행위 분석”,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2권, 제4호, pp.363-370, 2004.
- [15] 허혜경, 박소미, “유방자가검진 행위단계에 따른 의사결정균형과 확산성 비교연구”, 성인간호학회지, 제16권, 제3호, pp.493-500, 2004.
- [16] 김미옥, 박영미, “산과 간호사의 유방암과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여성건강간호학회지, 제17권, 제1호, pp.88-98, 2011.
- [17] 강현주, 건강신념 모형에 따른 유방자가검진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요인 연구, 건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18] 양영희, “중년여성의 유방자가검진 교육이 유방자가검진 지식, 자기효능감 및 수행에 미치는 효과”, 기본간호학회지, 제14권, 제2호, pp.189-197, 2007.
- [19] 송진미, 성남 안양교육청 중학교 교사들의 건강관련 운동지식과 행동,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 [20] J. F. Sallis and M. Hovell, “Determinants of exercise behavior,” Exercise and Sports Sciences Review, Vol.18, pp.307-330, 1990.
- [21] 민혜진, 여대생의 골다공증에 대한 지식, 건강신념,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연구, 을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22] 변영순, 강석은, “20대 여성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과 수행에 관한 연구”, 이화간호학회지, 제40호, pp.99-109, 2006.

[23] 석현아, 염가연, 윤지은, 이승현, 이진아, 이현숙, 최지은, “여대생들의 유방암 및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과 시행정도에 관한 연구”, 이화간호학회지, 제42호, pp.23-33, 2008.

[24] 조홍숙, *중년여성의 유방암 위험 정도와 유방자가검진 지식 및 수행여부와의 관계*,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25] 이경혜, 김현경, 고은혜, 권형지, 김선주, 심소연, 안선례, 이지은, “성인초기 여성의 건강신념과 유방자가검진 양상 연구”, 이화간호학회지, 제 40호, pp.23-39, 2006.

[26] J. A. Mamon and J. G. Zapka, “Improving frequency and proficiency of breast Self-examination: Effectiveness of an education program,”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75, No.6. pp.618-624, 1985.

[27] K. Umeh and L. Jones, “Mutually Dependent Health Beliefs Associated With Breast Self-examination in British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Vol.59, No.2, 2010.

[28] 유양경, 최순기, 황순정, 김희숙, “생활습관에 따른 유방암의 위험요인”, 한국콘텐츠학회지, 제 13권, 제4호, pp.262-272, 2013.

[29] V. L. Champion, “Instrument refinement for Research,” Vol.42 No.3, pp.139-143, 1993.

[30] 유근영, 안윤옥, “유방암의 원인”, 대한의학협회지, 제35권, 제4호, pp.475-478, 1992.

[31] 백명, *유방 자가검진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32] 김미향, *유방암 자가검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33] 이자형, “20대여성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연구”, 이화간호학회지, 제

43호, pp.29-40, 2009.

[34] 양남영, 문선영, “경기지역 여대생이 지각한 유방자가검진의 지식, 자기효능감 및 이행간의 관계”,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제26권, 제3호, pp.22-37, 2009.

[35] 성미혜, “일부 성인여성의 유방자가검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검진능력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 건강증진학회, 제21권, 제2호, pp.187-198, 2004.

[36] M. N. Fouad, E. Partridge, M. Dignan, C. Holt, R. Johnson, C. Nagy, S. Person, T. Wynn, I. Scarinci, “Targetted intervention strategies to increase and maintain mammography utilization among African American women.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Vol.100, No.12, pp.2526-2531, 2010.

[37] L. Baxter, N. Egbert, and E. Ho, “Everyday health communication experience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merican College Health*, Vol.56, No.4, pp.427-435, 2008.

[38] 이선영, “30대 여성과 4.50대 중장년 여성의 유방암 검진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1권, 제4호, pp.417-455, 2011.

[39] 박은하, *유방자가검진 참여 교육프로그램이 유방자가검진 이행과 건강증진행위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저자 소개

김 영 숙(Young-Suk Kim)

정희원



- 2008년 2월 : 고신대학교 간호학과(간호학 석사)
- 2012년 ~ 현재 : 고신대학교 간호학과 박사 재학 중

<관심분야> : 성인, 암 생존자, 삶의 질